

# 韓國 割腹에 關한 研究\*

蔚山大 魯 成煥\*\*

## <국문요지>

현대 한국에서의 할복은 그 숫자만 보더라도 더 이상 생소한 자살법이 아니다. 할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령, 성별, 직업, 계절 등과 연결시켜 그 특징을 생각하여 보았을 때 연령은 동아시아형을 유지하고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또 직업과 계절과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처럼 열십자형도 없고, 목을 쳐주는 보조수단도 없었고, 도구도 등산용 칼, 과도, 식칼, 면도칼, 흉기 등 각종 다양하게 등장했다. 그리고 할복의 개념도 넓어 찌름과 가름을 막론하고 복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면 모두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비공개형 보다 공개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자는 공격적인 할복이 많았고, 후자는 비관적인 할복에 많았다.

그러나 공개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위사람들의 제지가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예외에 속할 정도로 드물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공격형의 할복은 자살을 위장한 자기현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할복은 죽지 않고 가장 성의 있고 극렬한 방법으로 자기 표현하는 자살방법으로 정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동기의 유형에 대해서는 항의, 반대, 요구, 위협 등의 의미가 갖는 공격형과 업무 수행상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사죄를 의미하는 책무형,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결백형, 좌절로 인하여 죽음을 택하는 비관형, 명예를 실추되었을 때 취하는 명예형의 5가지 형태가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책무형과 결백형과 명예형은 개념만 존재할 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할복은 공격형과 비관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만 있을 뿐이다.

키워드: 할복, 비관형, 공격형, 결백형, 명예형, 책무형, 자살방법, 자살도구.

## 1. 서론

지난 98년 3월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로 부터 밤샘조사를 받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특별조사실 내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흉기로 할복 자살을 기도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sup>1)</sup>.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갖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예를 들면 그의 할복이 순간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 이루어져 검찰의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동정여론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비겁하게 사건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할복하여 수사의 초점을 흐리게 했다는 비판여론도 있었다.

한편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 행하여 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초점이 모여지기도 하였다. 전자에 찬성을 하는 사람은 복부를 한차례도 아니고 세 차례나 예리한 흉기로 자해했고, 특히 이 중 2차례는 가벼운 상처만 내다가 마지막 시도에서 하복부 4-5센치 정도 깊은 상처를 내어 복막이 절단되고 동맥이 끊어지는 중상을 가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분명히 할복을 통해 자살을 기도했으리라고 해석했다. 그에 비해 후자는 만일 자살을 기도하는 것이라면

1) 동아일보 98년 3월 21일자

목숨이 끊어지는 손목의 동맥을 절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정치적 상징성이 큰 할복을 택할 리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할복은 자살기도라기 보다는 정치권에 대한 저항과 여론의 반전을 노린 단순 자해행위에 불과하다고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정작 그의 할복 동기가 인간적 모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사건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또 자살 혹은 자해이나 하는 문제 등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본인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한 우리들이 내리는 해석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할복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록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는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할복은 권영해씨뿐만 아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고<sup>2)</sup>, 그 이후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가끔 신문지상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할복이라는 자살이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너무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편적이거나 그에 대한 언급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설가 송우혜는 할복이란 가장 일본적인 행위이므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할복은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일그러진 문화형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sup>3)</sup>. 그에 비해 박영수는 할복을 택하는 이유를 고대 로마인들이 피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믿었듯이 한국과 일본인이 할복하는 것은 배에 마음이 들어있다는 동양적 사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sup>4)</sup>.

좀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전자의 경우, 할복이 일본적인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복의 방법은 좋지 않다는 논리와도 통하는 것이다. 분명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복은 일본을 대표하는 자살법의 하나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 할복을 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96년 3월 초 미 하버드대 페어뱅크센터내 한국학 연구소에서 한국현안 세미나가 열렸을 때 한 미국인 학자가 한국기자에게 “군사정권시절 한국대학생들의 투신과 분신은 일본 사무라이들의 할복에 영향 받은 것이 아닌가?”고 묻자, 우리측 기자는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지키려고 한 것은 생명보다 명예였지만 당시 한국청년들에게는 명예보다 더 절박한 것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한다<sup>5)</sup>.

마치 송우혜의 할복론은 여기서 등장하는 미국인 학자의 시점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나는 “보다 절박한 것이 있었다.”라고 대답한 한국인 기자의 입장에 서고 싶다. 왜냐하면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서도 할복을 택하는 데는 단순히 문화 전파론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이 다른 신체부위가 아닌 배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우리의 할복과 일본인의 할복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기 쉽다. 과연 할복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것일까? 아무리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문화는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검토 없이 두 나라의 할복을 동일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이에 본고는 먼저 현대 한국의 할복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복을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신문, 잡지 등에서 찾아 그 유형별로 정리하여 봄으로써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노성환 「할복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23)』 (비교민속학회, 2002년)

3) 99년 8월 15일자 동아일보

4) 박영수 『마음은 인체의 어디에 담겨 있을까?』 (을유문화사, 1997년)

5) 동아일보. 98년 2월 20일자

## 2. 할복하는 사람들

현대 한국사회의 할복자를 찾기 위해 본 연구는 1975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75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 해 서울대생 김상진군의 할복사건 있었고, 그 이후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할복자들이 급격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상진군의 할복이 우리 나라의 할복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분기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할복을 실천으로 옮긴 자가 34명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할복을 하려다 못한 사람, 그리고 할복에 대해 언급하는 정치인 및 일반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다. 그만큼 할복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할복관을 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러기에 앞서 먼저 실제로 할복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캐나다의 자살연구가인 후세 토요마사(布施豊正)는 나이와 자살 그리고 성별과 자살의 관계를 고찰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자살과 연령의 관계에서 대략 3가지 형태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유럽형으로 자살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착실하게 증가하다가 노년층에 다다르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이며, 둘째는 앵글로 색슨형으로 자살율이 나이가 들에 따라 서서히 상승하다가 노년층이 되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형태이다. 그리고 셋째는 동아시아형으로 청소년층의 자살이 피크를 이루다가 중년에 접어들어 감소하고, 또 6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 다시 상승하는 형태가 있다고 보았다<sup>6)</sup>.

그리고 그는 남자가 자살의 성공률이 여자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이유는 남자가 총화기 사용,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선로에 뛰어들기 등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여성은 수면제 등 음독이 많기 때문에 자살미수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sup>7)</sup>.

여기에 비해 불란서의 자살 연구가인 마르탄 모네스투(Martin Monestier)는 직업과 계절에 따라 자살의 방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을 했다. 즉, 양치기와 나뭇꾼과 광부, 경찰관, 도살업자는 목조르기를 좋아하고, 노동자는 교수와 화기를 좋아하며, 운송업자는 식사와 목조르기와 질식사를 좋아하고, 하인과 제빵 기술자는 식사와 화기를 좋아하며, 작가와 예술가와 같은 자유업은 총기사용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질식사가 많고, 6, 7월에는 뛰어내리거나 음독 그리고 도검을 이용한 자살이 많으며, 8월에는 화기사용이 많고, 7월과 10월에는 식사와 목 조르는 자살이 많다고 한다<sup>8)</sup>.

이들의 해석들을 한국의 할복에 적용하면 어떠한 특징이 보일까? 먼저 할복자의 나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할복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성격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전체 34명 중 20대가 11명, 30대가 3명, 40대가 1명, 50대 1명, 60대가 3명, 70대가 3명이었다. 여기에서 보듯이 2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40, 50대가 적고 60대와 70대가 그것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할복은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부부중심의 가족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족에 대한 연계성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을 후세(布施)의 이론을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할복이 20대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다가 40, 50대에 감소의 추세로 있다가 60, 70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아시아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6) 布施豊正 『自殺と文化』(新潮社, 1985年) p125-126

7) 布施豊正, 앞의 책 p140

8) Martin Monestier 『SUICIDES(自殺全書)』 <大塚宏子譯>(原書房, 1997年) p15-16

수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할복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 할복자 34명 중 여성은 고작 7명밖에 없다. 남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것이다. 이는 후세가 말하는 대로 여성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방법보다 약물 또는 독물을 선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에 대해 마르탄은 여성의 자살자 4분의 3이 약물 또는 음독으로 자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성은 총기와 도금류를 이용한 자살에 대해서는 혐오를 느낀다고 해석했다<sup>9)</sup>. 이러한 해석은 한국의 할복에도 적용될 것 같다. 즉, 한국에 있어서 할복은 남성들이 택하는 자살법이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의 할복은 계절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1월부터 12월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3, 4월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8, 10월에 많으며, 1월과 12월이 그 뒤를 잇고 있다. 3, 4월이 가장 많다고 해도 그 뒤의 8, 10월 보다 하나가 더 많고, 또 8, 10월은 1, 12월보다 하나가 더 많다. 그러므로 어느 계절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마르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도검을 사용하는 자살이 6, 7월에 많다고 하나, 같은 도검을 사용하는 한국의 할복은 3, 4월이 가장 많다. 이 점도 유럽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의 할복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계절보다도 오히려 할복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점은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할복자의 직업은 학생, 회사원, 무직자, 퇴직교원, 식당종업원, 의사, 정치가, 선원, 전직장관, 승려, 기관장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도 어느 직종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마르탄이 말하는 직업상의 특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한국 할복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 割腹의 類型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무엇 때문에 할복을 하는 것일까? 흔히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유교문화의 강한 영향으로 자살 자체를 최악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더군다나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신체를 파괴하지 않는 형태의 자살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할복을 결행을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일까? 사람마다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할복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공격형, 책무형, 결백형, 비관형, 명예형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1) 공격형

할복 가운데 공격형이 가장 많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을 세분화하면 항의, 반대, 요구, 위협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첫째, 항의형의 가장 대표적인 할복으로서는 김상진과 조성만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김상진은 75년 4월 11일 그 날 서울농대 대강당 앞 잔디밭에서 열린 '구속학생 석방을 위한 자유성토대회' 끄트머리에 연사로 등장한 김상진은 선언문을 낭독하다가 갑자기 품안에서 칼을 꺼내어 할복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을 구속하는 정부에 대해 항의하면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할복을 하였던 것이다<sup>10)</sup>.

88년 5월 15일에는 명동성당에서 서울대생 조성만군이 통일문제 반미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하며 할복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양심수 전원 석방 및 수배자 해제

9) Martin Monestier. 앞의 책 p16

10) 한겨레신문. 92년 4월 10일자

축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던 오후 3시30분 무렵 교육관 옥상에 나타나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분단상황 고착화하는 미제놈들 몰아내자' '올림픽 공동 개최하여 조국 통일 앞당기자' '광주학살 진상규명 노태우를 처단하자' '양심수 전원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5장의 자필 유서를 뿌리고 자신의 배를 찢은 뒤 거꾸로 투신 하였던 것이다. 그도 김상진군 처럼 민주인사를 구속하는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하며 할복 투신으로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11).

이상 두 사람은 민주화를 위한 할복투쟁이었다면 91년의 이준상씨는 부정 부패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자행된 할복이었다. 그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 잔디밭에서 "수서 비리 은폐 주범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할복자살을 기도했다. 이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노태우 대통령과 국민, 1천만 노동자, 지식인, 종교인 등 앞으로 보내는 유인물 4종류 10여장을 뿌렸다.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6공 정권은 검찰과 경찰력을 동원해 정권유지에 급급, 최대 비리사건인 수서 특혜 분양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수서 사건은 청와대와 국회·재벌이 합작해 만든 부패·비리의 표본"이라면서 "더 이상 침묵과 방관은 온 국민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12).

그리고 98년 김대중 정권이 부패정치인에 대한 사정을 강화한다 하며 야당의원을 압박하자 임인배(林仁培)의원은 "지금 대구·경북지역 여론은 김대통령이 TV에 나오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을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사정대상자들은 할복자살을 못하겠다면 단식투쟁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13). 여기에서 할복은 현 정권이 자신들을 탄압한다고 이에 맞서 극렬하게 투쟁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할복은 단식보다 더 강렬한 항의방법이었던 것이다.

또 이러한 일도 있었다. 91년 3월 수원시 신평동 수원경찰서 옆 s식당 김모양이 경찰서에 음식배달을 갔다 욕설을 하는 전경의 뺨을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되자 이에 격분하여 9일 오전 8시 반 경 유서를 써놓고 수원경찰서 복도로 가 갖고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찢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수원도립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14). 그리고 96년 10월 14일에는 대전지방 검찰청 내 특수부 건물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교통사고 수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김봉수씨가 검경의 사고처리에 대한 불만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뒤 "검사 각성하라."는 구호를 5분여간 외치다 준비한 칼로 할복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할복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15).

둘째는 어떤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반대의사를 전달할 때에도 할복은 이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91년 1월 10일 일본의 카이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일본총리가 서울 파고다 공원 앞에 도착하는 순간 독립투사 자손 김경민씨가 길 건너편 인도에서 동료회원과 함께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등산용 칼을 꺼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 뒤 배 한 가운데를 두 차례 가로 긋는 할복을 했다 16). 그는 일본총리의 방한을 반대하며 할복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99년 8월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장에서도 할복사건이 있었다. 그 날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의결하기 직전,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석 앞으로 뛰어나가 여·야 의원들을 바라보며 법안처리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자해를 하였던 것이다 17).

11)한겨레신문. 99년 3월 23일자

12)한겨레신문. 91년 3월 6일자

13)경향신문. 98년 9월 23일자

14)동아일보. 91년 3월 10일자

15)동아일보. 96년 10월 15일자

16)조선일보. 91년 1월 11일자

17)동아일보. 99년 3월 18일자

이러한 할복은 탄광촌에서도 있었다. 2000년 5월 2일 고한, 사북, 남면의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할복을 해서라도 폐광지역이외의 카지노 허용을 막겠다'며 정부의 탄광촌 이외의 카지노허용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나섰던 것이다<sup>18)</sup>. 그리고 2001년 2월 27일에는 SOFA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판태씨가 SOFA 개정안에 대한 비준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며 할복을 기도하기도 했다<sup>19)</sup>. 이처럼 할복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도 이용되었던 것이다.

셋째, 할복은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구할 때도 등장했다. 91년 4월 경북산업대 이수미 양은 그 날 민주광장에서 열린 4·19집회에서 등록금 환불, 예결산 공개 등을 요구하며 면도칼로 배를 그어 할복을 기도했다<sup>20)</sup>. 그녀는 대학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등록금 환불과 예결산공개를 할복하며 요구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비해 5.18부상자인 장맹환 씨의 경우는 매우 정치적 성향이 강한 할복이었다. 그는 92년 6월 26일 광주시 전남도청 앞길에서 흥기로 자신의 배를 찌른 뒤 도청 정문 앞으로 달려가 자치단체장 선거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지자체 선거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할복으로서 요구하였던 것이다.

또 정신대 할머니들도 일본에게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요구할 때도 할복은 등장했다. 94년 1월에는 김복선, 문옥주, 이용수 등 정신대 할머니 3명이 25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며 할복시위를 벌였다<sup>21)</sup>. 이처럼 그들은 일본에게 자신들에 대한 배상금 지불을 위해 할복도 감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99년 11월 의약분쟁이 한창 벌어졌을 때 장충 체육관에서 열린 의사들의 집회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집행부를 향해 할복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sup>22)</sup>. 이처럼 할복은 강력하게 요구할 때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넷째, 할복은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때도 이용되었다. 83년 5월 17일 전남대에서 3등 맞은 5.18행사에서 “광주 학살자 전두환 정권은 물러가라.”는 깃발을 든 학생들이 사복형사들에게 포위되어, 그 포위망이 좁혀오자 한 학생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할복자살하겠다고 하며 웃웃을 걸어올리고 칼을 배에 갖다대며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 89년 12월5일 대전에 사는 서은석씨가 술취한 상태에서 대전의 어느 신경외과의원에서 “우리 형 살려내라. 원장 나와라.”고 고함치며 접수실 대형 유리창문을 칼로 깨뜨리고 잠가놓은 원무과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4명의 직원을 향해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하겠다고 위협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sup>23)</sup>.

그와 같은 또 한가지의 예는 93년 8월 태평양전쟁당시 군대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8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무실에서 일본정부의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2차 조사보고서발표회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정부는 강제연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죄발표로 군대위안부문제에 해결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할복 자살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며 일본정부에 위협을 가했던 것이다<sup>24)</sup>. 그리고 97년 4월 11일에는 인천의 연안부두에서 폭력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돼 연행되던 유원식씨가 인천 중부경찰서 김형근 순경이 그를 잡으려고 하자 유씨가 갑자기 흥기를 꺼내 할복하겠다고 위협하며 봉고차를 타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다<sup>25)</sup>. 이처럼 할복은

18)2000년 5월 2일 고한, 사북, 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긴급성명서 참조

19)동대신문. 2001년 3월19일자

20)조선일보. 91년 4월 20일자

21)한국일보. 94년 1월 26일자

22)조선일보. 2000년 1월 16일자

23)91년 9월 10일 대법원 판례집 참조

24)세계일보. 93년 8월 5일자

25)한겨레신문. 97년 4월 11일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상대를 위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 (2) 책무형

이 경우는 직책상 수행한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할복하는 것을 말한다. 98년 10월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이 교육부의 교육정상화안에 대해 과밀학급과 교사의 잡무 개선이 이뤄져야 정밀한 학생 평가가 가능하다며 “사업가는 사업에 실패하면 책임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직자는 정책 잘못이나 죄를 짓고도 자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약 공직자중 잘못을 책임지고 할복하는 인사가 나온다면 기업인들이 유가족을 기꺼이 맡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sup>26)</sup>. 이는 우리 나라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직책상 책임을 지는 할복을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을 꼬집은 표현이다.

그들이 그 의미를 몰라서 할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곧잘 책임과 할복을 연관시켜 발언을 했다. 예를 들면 99년 5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느냐.”는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 원내총무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총재 발언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가 떠나면 할복자살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극한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sup>27)</sup>.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할복은 직책상 잘못을 책임을 지는 자살행위로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무형의 할복은 선거 때도 나타났다. 부산진을 선관위는 2000년 4월 6일 합동연설회 때 일본도를 들고 등단한 황백현 민주당후보에 대해 서면 경고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는 5일 가야초등학교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국회에 진출해 독도를 지키지 못하면 일본도로 할복, 자살하겠다”며 일본도를 빼 보였던 것이다<sup>28)</sup>. 그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옹당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복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99년 3월 18일 오후 부산의 김용원 변호사가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한일 어업협상실패에 책임을 지고 할복자살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길이 65센치 크기의 일본도를 소포로 보낸 것도 바로 이러한 할복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은 책임을 지는 방법이 되지 못하며 국가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할복자살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9)</sup>.

이처럼 자신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갚는다는 의미에서 할복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 7월 우리의 정부가 미국과 SOFA협상을 벌일 때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잘못하면 할복(割腹)하라”는 협박전화가 많았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30)</sup>.

그러한 관계로 전직 대통령이 공항에서 봉변당한 적이 있었다. 99년 6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페인트에 맞아 머리와 양복이 다버려 출국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때 페인트를 던진 박의정씨는 현장에서 뿌린 유인물을 통하여 “나라를 망친 자가 할복자결을 해도 속죄할 길이 없거늘 어불성설의 망발로 통치권에 도전하는 것에 격분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sup>31)</sup>. 여기에서 보듯이 그에게서 IMF 당하도록 나라의 경제를 망쳐놓은 장본인은 김영삼 대통령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할복자결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져 있음을 엿볼

26) 경향신문. 98년 10월 22일자

27) 경향신문. 99년 5월 7일자

28) 한국일보. 2000년 4월 6일자

29) 경향신문. 99년 3월 18일자

30) 동아일보. 2000년 7월 17일자

31) 중앙일보. 99년 6월 3일자

수 있다.

이러한 책무형에는 사죄의 의미도 들어 있었다. 가령 자신의 발언으로 해외투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민을 보호해야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로 막대한 손해를 어민에게 끼쳤다면, 그리고 자신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가경제의 위기가 닥쳤다면 그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할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공직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73년 이혁수 감독이 만든 “할복”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 내용은 재일교포 정태는 강패조직의 보스이자 조총련의 간부로서 갖은 악행을 저지른다. 동생 정호는 재일교포의 서러움을 이기고자 강패조직에 몸담는다. 정호는 그의 보스 신겐의 동생 아예꼬를 사랑하나 형과는 적대관계에 선다. 그러던 중 정호는 신겐조직과 정태의 조직이 맞붙어 정태가 신겐에게 죽게되자 정호는 신겐에게 빌어 형 정태를 살린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가로 아버지를 조총련으로 전향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정태는 아버지가 끝내 거부하자 자신의 달성을 위하여 아버지를 죽인다. 이에 정호가 정태의 아지트로 뛰어들어 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에서 신겐에게 구출된다. 신겐 역시 한국인. 후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정태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며 할복자살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할 때 할복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할복이 지금까지 한건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는 개념상으로만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할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결백형

할복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56년 3대 국회에서 국제시계밀수 혐의로 제출된 자유당 박영출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이 상정된 바가 있다. 그 때 박 의원은 국회에서 결백을 강조하며 “죄가 있으면 할복 자살하겠다”는 말을 속기록에 남겼다. 그는 밀수한 사실이 없다고 할복을 빌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것이다.

한편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받을 때도 할복은 등장했다. 가령 2000년 린다 김 사건이 세간에 회자되었을 때 당시 민주당 고문이던 황명수 의원은 “린다 김에게 돈 받은게 드러나면 할복자살하겠다.”고 했으며<sup>32)</sup>, 정종택 전 환경부장관도 “그녀에게 내가 단돈 10원이라도 받았으면 할복자살할 것이다.”고 했고<sup>33)</sup>, 2001년 진승현 게이트 때에도 당시 법무부차관이었던 신광옥씨가 “진승현씨에게 돈을 받았다면 할복을 하겠다.”고 발언했다<sup>34)</sup>.

또 2000년 옷 로비사건 때 청와대 비서관 박주선씨는 최종 보고서 유출혐의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할복을 하든 머리를 뽕개든 내 속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2001년 민주당내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권노갑 전 최고위원에게 부정에 깊이 관여한 책임을 물어 정계은퇴 요구하고 나선 적이 있었다. 그 때 권노갑 前최고는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하며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원망했던 것이다<sup>35)</sup>. 이처럼 할복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내일신문. 2000년 5월 24일자

33)여성동아. 2000년 6월호

34)조선일보. 2000년 12월 17일자

35)동아일보. 2001년 10월 31일자

이러한 인식은 공직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있었다. 즉, 96년 5월30일 MBC 비상계획팀 김모씨가 노조사무실에 들러 문서를 훔치려다 들킨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노조원들은 그가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주하여 한 것이라고 의심을 받게되자 그는 “회사가 시켰다면 할복 자살하겠다.”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sup>36)</sup>. 이처럼 할복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사용되는 죽음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결백과 관련된 할복에서 특이한 사실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결백의 주장에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할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조선시대 때 임경업장군 부인이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배를 가르고 죽었고, 또 많은 일본인들이 자신의 결백을 위해 할복을 하였으며, 중국의 안금장도 반역의 혐의로 축천무후가 자신을 의심을 하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배를 갈랐다. 즉, 그들은 할복함으로써 결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는 예외 없이 “만일 내가 ...했다면”이라는 토를 달고 있다. 이는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할복을 할 것이고, 잘못하지 않았다면 할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한 잘잘못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런 경우의 할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한 탓인지 이 경우의 할복도 지금까지 한 건도 발견된 적이 없다. 이처럼 그들의 할복관은 과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그것과도 크게 다른 것이었다.

#### (4)비관형

이는 자신에게 들어 닥친 불행에 좌절하여 할복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를 말한다. 79년 10월4일 새벽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의 수사요원들은 '불온저단' 살포사건에 연루된 정신여중 교사 이수일을 추적하다 서울 잠실시영아파트 11동 408호를 덮쳤다. 그 때 그곳에는 이재문과 김남주 등 다섯 명의 조직원이 살고 있었다. 경찰이 갑자기 아파트에 들어 닥치자 그들의 총책임 이재문이 서류보따리를 창 밖으로 던지고 칼로 할복자살을 기도하였던 것이다<sup>37)</sup>.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전위대로서 학생, 지식인 및 긴급조치위반 수형자 등을 포섭, 폭력에 의해 적화통일을 기도해 온 대규모 반국가 조직단체인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비밀히 활동해왔다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할복한 이재문은 국가기관원에 의해 체포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계획해온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체포되어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취조가 계속될 것이고, 자신의 진술에 따라 자신과 함께 활동했던 조직원들에게도 위협이 들어 닥친다는 것은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당장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방법으로는 휴대하고 있는 흉기로 생명을 끊는 자살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때 그는 할복 자결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일종의 절망에서 오는 비관자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비관하여 할복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92년 3월 서울에 사는 김국권씨가 동료직원 이모양 집에 찾아가 사랑을 호소하다 이양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거절하자 비관하여 갖고 있던 식칼로 자신의 배를 찔렀던 것이다<sup>38)</sup>. 그리고 91년 부산에 사는 박태규씨는 부산시 구포여상 서무과장으로 재직하다 89년 3월 정년 퇴직한 후 노후대책으로 퇴직금 9천 8백만원·예금 2천만원 등 모두 1억 1천8백만 원을 지난해 4월 증권에 투자했으나 1년만에 1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비관, 부부동반자살을 기도했고<sup>39)</sup>, 또 97년에는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주민대책위 위

36)미디어 오늘. 96년 6월 12일자

37)서울신문. 79년 10월 9일자

38)국민일보. 92년 3월 3일자

원장 전만규씨도 마을 사람들이 내부갈등을 일으키자 비판하여 할복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으며 40), 또 같은 해 대전시 동구 흥도동 H맨션 최모씨 집에서 최씨 친구 이모씨는 "하는 일도 잘 안되고 막막하다. 뭘가를 보여주겠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자신의 배를 찔러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41). 그리고 98년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민모씨의 셋방에서 회전의자 수출업체인 (주)kit이사 김태명씨가 회사의 부도로 비판하여 배를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99년에는 울산에 거주하던 윤재훈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할복하여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으며42). 2000년 11월에는 진해에 사는 최광술씨가 복부에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같은 집에 살던 최모씨가 발견했다. 이웃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최근 경기침체로 일감이 끊어지자 매일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그가 생활고를 비판 할복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43). 이처럼 자신이 체포되거나 구혼이 거절당하며, 또 무리한 주식투자로 말미암아 가사를 탕진하거나 자신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실직으로 인한 좌절이 닥쳐 그에 대하여 비판하였을 때 할복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 (5) 명예형

이는 실추된 명예에 책임을 지고 할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장세동씨가 『한국논단』(97년 11월호)를 통하여 정승화씨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것에 의하면 "10.26 때 정씨의 석연치 못한 행적과 이를 수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12. 12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후 당시 정씨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오욕일 뿐 아니라 군의 명예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할복은 못할 망정, 못한 변명 모습을 왜 후배들에게 보여주는냐."며 비난했다. 여기에서 보듯 명예가 실추되는 치욕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는 할복을 하며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또 군사 평론가인 이선희씨는 린다김 사건에 연루된 당시 국방부장관 이양호씨를 두고 "국록을 먹고 별을 4개나 달았던 장관이란 자가 더욱이 교회의 장로란 직분을 가진 자로서, 가족과 주위의 부하들에게 부끄러워서 할복자살이라도 해야 할 그가 어찌 사춘기의 문학소녀나 해 봄직한 '사랑하는 린다'라는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통렬히 비판을 가했다. 여기서도 자신의 명예가 그지없이 도덕적으로 실추되었을 때 자결하는 방법이 할복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가 98년에도 있었다. 그 해 4월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서울사택에서 외화 12억 달러와 3천500만원 현금이 도난 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을 때 유지사가 개설해놓은 인터넷 홈페이지 '유종근에 바란다' 와 '자유 게시판' 코너에는 지난 16일 "도지사가 외화 12억 달러와 3천500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도난을 당해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 남자답게 사실을 인정하고 할복자살로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글이 오른 적이 있다44). 이처럼 할복은 그 신분에 걸맞는 명예롭게 죽는 자살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복자결하는 예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책무형과 결백형과 마찬가지로 개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살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4. 割腹의 方法

39) 중앙일보. 91년 4월 8일자

40) 『말(제171호)』(2000년 9월)

41) 조선일보. 97년 7월13일자

42) 한겨레신문. 99년 11월 19일자

43) 연합뉴스. 2000년 11월 18일자

44) 연합뉴스. 99년 4월 18일자

한국의 할복은 일본처럼 방법적인 면에서 형식화된 것이 없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절도 있게 거행되는 일본의 할복과는 완전히 다르다. 할복자가 배를 가르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가 목을 쳐주는 것도 더더욱 없다. 그러므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정한 틀이 있을 수 없다. 가령 할복에 사용한 도구를 보더라도 등산용 칼, 면도칼, 식칼, 과일, 유리, 문방구용 칼, 커터, 흉기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할복에 대해서도 매우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그것에는 그음(가름)과 찌름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 그음의 예로는 권영해씨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군 출신답게 자신의 배를 각각 20센치, 25센치, 30센치씩 세 차례나 칼로 그었다. 이는 찢었다기 보다는 그음에 더 가까웠다. 그 결과 그의 하복부의 하복부 복막이 20센치 정도 절개되고, 복벽의 동맥이 절단돼 피가 많이 흘러 생명의 위험 상황까지 몰고 갔다<sup>45)</sup>. 일반적으로 가로로 한번 가르는 것도 어렵다. 더군다나 한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갈랐다는 것은 할복의 나라인 일본에서조차 보기 드문 용기 있는 할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할복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만일 그가 일본인처럼 내장이 나오도록 하복부를 깊게 찢러 갈랐다면 3번씩이나 가르는 것은 불가능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의 할복은 동기를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자신의 배를 힘차게 가르는 할복은 91년의 김경민씨의 경우도 그러했다. 그는 배 한가운데를 예리한 칼로 1-2센치 깊이로 25센치 가량 두 차례나 가로로 그었다. 그리고 91년의 이수미양도 가로로 배를 가르는 형태의 할복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할복도 갈랐다고 보다는 그었다는 표현에 더 어울린다.

둘째는 배를 찢르는 형태의 할복이다. 사실 이러한 예들은 할복을 낱말 그대로 엄격히 정의하여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하면 할복의 범주에 넣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모두 할복의 범주 속에 넣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 92년의 김국권씨는 식칼로 자신의 배를 5차례나 찢러 절명했다<sup>46)</sup>. 여기에서 보듯이 그는 배를 갈랐다고 보다는 배를 무자비하게 찢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러한 할복은 91년 3월 국회의사당 안 잔디밭에서 할복한 이준상씨, 91년 3월 수원경찰서에서 할복한 s식당의 김모양, 92년 10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할복한 오병학씨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다만 이들은 위의 김국권씨 처럼 깊게 무자비하게 찢르지 않고 약간의 상처만 입을 뿐이다.

이처럼 할복을 한 모양으로만 본다면 굿는 형과 찢르는 형의 두 가지 종류의 할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사용되는 도구는 대개 면도칼, 유리, 문방구용 칼, 커터가 많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는 식칼, 등산용 칼, 과일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즉, 굿기 좋은 칼, 찢르기 좋은 칼, 즉, 칼의 용도에 따라 할복의 모양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일본의 항의형 할복처럼 내장이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찢르는 것이 아닌 굿거나 가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의 할복이 그다지 깊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할복은 생명을 단절시키기란 매우 어려워 미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할복자가 자신의 할복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자살의 성공률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조사결과 전체 할복자 34명 중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단지 4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4명은 가산탕진, 내부분열, 회사부도, 사회의 부적응 등 모두 비관형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에 비해 공개하는 경우는 항의, 반대, 요구가 포함된 공격형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특징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다름 아

45) 동아일보 98년 3월 21일자

46) 국민일보, 92년 3월 3일자

년 공개형은 죽음에 이르기 어려운 반면, 비공개형은 죽음에 이르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공개형인 경우 이를 지켜보는 주변사람들의 제지로 죽음에 이르기가 무척 힘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90년 제네바 GATT 본부 앞에서 할복 소동을 벌였던 이경혜씨는 93년 12월 7일 또 한번의 할복을 시도했지만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날 서울 역 앞에서 민주당주최 “쌀 개방저지집회”에서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회 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 단상에 올라간 그는 “이제 농민은 다 죽게 되었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니 농민을 위해 다시 죽겠다”고 말한 뒤 주머니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할복 자해를 시도했을 때 이미 그 정보를 입수하고 대기 중이던 민주당 청년들이 제지하였기 때문이었다<sup>47)</sup>. 그리고 92년 10월 26일에 서울 일본대사관에 벌어진 할복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즉, 그 날 안중근 의사 의거 83주년을 맞아 일본 핵무장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의 재무장을 경계하는 한국인연맹의 회원 오병학씨가 미리 준비한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을 기도했으나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의거 8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회원 30여명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 대통령 방일반대” “일본 핵무장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장기를 불태우려다 경찰이 저지하자 갑자기 품에서 길이 15cm의 과도를 할복자살을 하였으나 이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그는 전치 3주의 가벼운 상처만 입고 끝나 버렸다<sup>48)</sup>. 이처럼 공개형의 할복은 주변상황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비해 비공개형의 할복은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죽음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는 증권투자에 실패하여 자살을 시도한 부산의 박규태씨, 그리고 부도비관으로 할복한 김태명씨,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할복한 윤재훈씨 등의 할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발견되지 않는 한 죽게 된다. 그리하여 매항리 전만규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중 98년의 권영혜씨와 99년 8월 충남 태안군 소원파출소에 근무했던 윤모 순경의 경우가 비공개적이면서도 살아남은 특수한 예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데 있다. 권영혜씨의 경우 할복자살 기도 후 고통을 이기지 못한 듯 변기 윗뚜껑을 세면대로 내리치며 고향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여 검찰직원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그를 제지하고 병원에 옮겨지는 바람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윤모 순경은 경찰의 과중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할복을 기도했으나 스스로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살아 남을 수 있었다<sup>49)</sup>. 만일 권영혜씨가 할복 후 소동을 부리지 않고, 또 윤모 순경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할복의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공개의 여부에 따라 죽음의 보장성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할복이 공개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할복자가 자신의 죽음을 공개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지켜 봐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들이 많은 자살법 중 할복을 택하는 이유가 배에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고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개형이 죽음에 대해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을 통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힘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하나의 위장자살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즉, 할복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으나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7) 한국일보. 93년 12월 8일자

48) 한겨레신문. 92년 10월 27일자

49) 동아일보. 99년 8월 13일자

할복 그 자체만으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 배는 직접적인 생명의 단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복은 자결방법 중 최악의 방법으로 정평이 나 있다. 따라서 생명을 끊으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할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보조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88년 5월의 서울대생 조성만군이 취했던 것처럼 할복한 뒤 높은 건물에서 투신하여 죽거나, 아니면 소원과출소 운모 순경처럼 할복하고 손목의 동맥을 끊는 일이다. 그러나 주변환경이 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할복을 한 다음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하는 방법도 강구되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은 없었지만 그 방법을 빌려 상대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은 있었다. 예를 들면 98년 12월 22일 당시 정화개혁위 승려들이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 청사 점거를 했을 때 경찰이 그들의 강제해산을 위해 경내에 들어가려고 하자 각운스님등 승려 2명이 옷을 벗은 채 “경찰 즉각 철수”를 주장하며 경찰이 가까이 오면 칼로 배를 가르고 석유를 온몸에 끼었으며 분신하겠다고 위협을 했던 것이다<sup>50)</sup>.

이처럼 할복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투신과 분신 그리고 동맥의 절단을 그것에 덧붙이는 보조수단으로서 강구되었던 것이다. 시각적인 효과와 확실한 죽음이 보장되지 않는 할복은 분신이라는 새로운 공격용의 자살법이 개발되면 더욱 더 그 힘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분신은 시각적인 효과는 물론 확실한 죽음의 보장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sup>51)</sup>. 현재 사회운동가들 중 죽음을 통하여 강렬하게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때 할복보다 분신이 많은 것도 바로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이상에서 보듯이 현대 한국에서의 할복은 그 숫자만 보더라도 더 이상 생소한 자살법이 아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남성의 네티즌들의 항의는 빗발치듯 쏟아졌다. 그들이 보낸 의견 속에 “할복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sup>52)</sup>. 그만큼 할복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는 죽음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할복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령, 성별, 직업, 계절 등과 연결시켜 그 특징을 생각하여 보았을 때 연령은 동아시아형을 유지하고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또 직업과 계절과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처럼 열십자형도 없고, 목을 쳐주는 카이샤쿠도 없었고, 도구도 등산용 칼, 과도, 식칼, 면도칼, 흉기 등 각종 다양하게 등장했다. 그리고 할복의 개념도 넓어 찌름과 가름을 막론하고 복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면 모두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비공개형 보다 공개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자는 공격적인 할복이 많았고, 후자는 비관적인 할복에 많았다.

자신의 죽음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지켜봐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할복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본에서는 할복을 하고 내장을 드러내고 항의하며 죽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할복은 한번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여졌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제지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죽는 사람이 예외에 속할 정도이다. 더군다나 투신, 분신 그리고 동맥절단이라는 보조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50) 한겨레신문. 98년 12월 23일자

51) 노성환 「한국의 분신과 일본의 할복」 『한국일본어문학회(12)』 (한국일본어문학회, 2002년)

52) 동아일보. 99년 12월 27일자

죽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공격형의 할복은 자살을 위장한 자기현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할복은 죽지 않고 가장 성의 있고 극렬한 방법으로 자기 표현하는 자살방법으로 정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동기의 유형에 대해서는 항의, 반대, 요구, 위협 등의 의미가 깃든 공격형과 업무 수행상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사죄를 의미하는 책무형,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결백형, 좌절로 인하여 죽음을 택하는 비관형, 명예를 실추되었을 때 취하는 명예형의 5가지 형태가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책무형과 결백형과 명예형은 개념만 존재할 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할복은 공격형과 비관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만 있을 뿐이다. 옛날처럼 충군, 애국형도 없고, 또 정조와 효를 이루기 위한 유교형의 할복도 없으며, 자기결백을 주장하는 결백형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애국과 의리가 있고, 책임감이 있으며, 결백을 믿을만하고, 자신의 명예를 목숨으로써 지키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박영수, 마음은 인체의 어디에 있을까(을유문화사, 1997년). 45-46 쪽
- 노성환, 「한국분신과 일본의 할복」 『한국일본어문학회(9)』 (한국일본어문학회, 2002년). 454-479쪽
- 노성환, 「한.중.일 할복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23)』 (비교민속학회, 2002년). 275-294쪽
- 千葉徳爾, 切腹の話(講談社, 1972년). 118-125 쪽
- 千葉徳爾, 日本人はなぜ切腹するのか (東京堂出版, 1994년). 120-123쪽
- 布施豊正, 『自殺と文化』 (新潮社, 1985년). 125-126 쪽
- Martin Monestier, <大塚宏子譯> 『SUICIDES(自殺全書)』 (原書房, 1997년). 15-16쪽
- 大畏三好 切腹の歴史(雄山閣, 2000년). 181-202쪽

## A Study on Suicide by disembowelment in Korea

Suicide by disembowelment is not a new suicide method in Korea, as we consider its numbers. Researching the correlation of suicide by disembowelment with age, sex, occupation and season, it features East Asia Type in age, male surpassing to female, and no relationship in occupation and seasons.

The method is also not refined. There have been neither crisscross-type nor auxiliary equipment to smite neck. Only mountain-climbing knife, kitchen knife, fruit knife, razor, and other deadly weapons have been used. Moreover, as long as it traumatizes stomach regardless of stabbing or cutting, it belongs to suicide by disembowelment in a broad sense. Open suicide outnumbers closed suicide, and the former happens in aggressive suicide the latter in pessimistic case.

However, open suicide has rare chance of success. Due to detaining by neighboring people, its success can be an exception. Consequently, aggressive type in Korea stands in self-manifestation under disguising suicide. Therefore, suicide by disembowelment has lodged as the acute suicide type showing sincerity, but not killing oneself in Korea.

Five types are classified in its motivation. There are first aggressive type implying protest, objection, demand, and threat, and secondly responsible type meaning obligation and apology to admit a mistake on duty. Third innocent type is to claim ones purity; fourthly pessimistic type is to choose death because of frustration, and finally honorable type in case of losing ones fame. However, responsible and honorable types exist in concept only. Strictly speaking, therefore, only two types of suicide by disembowelment exist in Korea, aggressive and pessimistic types.

K C I

1. 논문제목 한국 할복의 유형과 방법에 관한 연구
2. 필자명:노성환 (NO Sung Hwan)
3. 구두발표장소: 2002년, 한남대학교
4. 근무처: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5. 전공:비교민속학
6. 주소: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이진리 622번지
7. 전화번호:052-259-2542
8. 이 메일:nosh1@hanmail.net

\* 이 논문은 2001년도 울산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K C I